

중남미 5대 전자수출 품목 조사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소장
경제학박사 윤 동 훈

I. 중남미시장 개황

1. 아르헨티나 지불유예

아르헨티나가 지불유예(moratorium)상태에 빠져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이다. 작년 말부터 정치적 혼미를 거듭했던 아르헨티나는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외채상환의 유예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만기 도래한 외채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고 말았다.

2001년 2월 들어 중앙은행 총재의 비리 및 터키 외환위기 영향에 이어 수차례의 경제장관 단명 등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였다. 1991년에 달러화와 페소화를 1대 1로 하는 태환정책을 도입하여 고인플레이션을 해결함으로써 1997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 일등공신의 역할을 한 바 있었던 카발로가 경제장관에 다시

등장하였다.

카발로장관의 새로운 경제정책마저 정치, 노동계의 불안 가운데 표류하였고, 카발로는 사임하게 되었다. 노동계의 총파업은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었고, 야당인 페론당이 선거에서 선거에 승리하여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2002년 1월 1일 페론당 소속인 에두아르도 두알데 상원의원이 2년 임기의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1월 6일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권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년간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비상경제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페소화와 달러화의 1대 1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환율제의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2년 1월 6일 환율을 약 28.5% 평가절하한 달러당 1.40페소로 변경했고, 2월 초 달러당 2.2페소로, 3월 중순에 3.0페소로, 3월 말 4페소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석장관이 페소화를 달러화에 고정시키



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폐소화의 가치 하락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폐소화의 급락은 1980년 말의 초인플레가 재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위기가 이 중삼중으로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난이 가중되자 각급 정부가 공채 발행을 제한 없이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급여를 비롯하여 공공자금에 사용될 공채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시중 통화량의 약 3분의 1이 공채가 차지하고 있다는 추산이다.

2.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제관계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직간접적으로 교역하는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아르헨티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약 1억2천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고 있으며, 교역도 전체 교역의 0.4%인 연간 5억달러 규모이다.

아르헨티나와 비즈니스를 하는 개별 기업들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새로이 추진하는 수출이나 기존 수출 대금의 결제가 차질을 빚을 것이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침체되어 자금 조달이 어렵고 판매가 감소하는 등 현장의 경영 여건이 대단히 악화될 것이므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움 영향도 거의 없다. 한국의 주가는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국내 주식시장이 아르헨티나 요인보다는 엔화 하락과 기업실적 실적 등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르헨티나에 유가증권 투자 및 수출 신용 보증과 대출한 규모가 2001년 기준 약 8,300

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 아르헨티나가 부도를 낼 경우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중남미시장 규모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중남미지역은 이들 문화권에 속하고 있으며, 개발도상지역으로서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앞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남미지역은 정치와 경제의 불안이 반복, 확대 재생산되는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지역적인 리스크 만이 항상 큰 것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중남미지역은 한편으로 개발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도 상존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등 지역간 협력체제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LAIA는 1980년에 만들어진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중남미지역은 약 5억명의 인구와 2조 달러의 국내총생산, 실질 구매력 기준 전 세계의 8.4%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33개국이 정립되어 있어 각국의 경제력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중남미를 상징하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아르헨티나 3개국이 중남미 인구의 약 60%, 국내총생산 및 소비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중남미 경제는 1999년에 0% 성장이라는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2000년에는 4%대로 성장하였다. 2001년에는 다시 경기가 하락하였다.

II. 중남미 전자제품 교역

전자시장연구보고서

〈표 1〉 한국의 중남미 전자산업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괄호 안은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1-9월)
수 출	86.7 (-3.3)	88.7 (2.3)	86.4 (-2.5)	93.7 (8.4)	72.2 (7.1)
전자산업	20.8 (-)	17.3 (-17.0)	23.2 (34.4)	27.0 (16.5)	19.2 (-7.2)
수 입	40.8 (-7.2)	22.0 (-46.1)	28.6 (30.4)	32.6 (13.9)	25.3 (2.9)
전자산업	0.5 (-)	0.7 (40.8)	1.3 (84.2)	2.3 (82.0)	1.1 (-30.0)
무역수지	45.9	66.7	57.8	61.1	50.9
전자산업	20.3	17.0	22.0	25.0	18.0

주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한국무역통계

1. 한국과 중남미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과의 전자부문의 교역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남미지역으로의 총수출은 한 동안 86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대로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2000년에는 9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2001년에도 총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72.2억 달러에 달하였다. 반면, 전자산업 분야의 수출은 중남미지역의 정보기술(IT)경기의 하강과 함께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19.2억 달러에 그쳤다.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대중남미 총수입은 1997년의 40.8억 달러에서 1998년에 22억 달러, 1999년에 28.6억 달러로 줄었다가, 2000년에 3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 늘어났다. 2001년 9월 누계 기준 (이하 2001년으로 기재함) 전년 동

기 대비 2.9% 증가한 25.3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전자산업 분야의 수입은 그동안 미미하였다. 1999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 2.3억 달러였고, 2001년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크고 수입은 적어 중남미지역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총수출 측면과 전자산업 분야 공히 한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에 있어 총흑자 규모는 2000년에 61.1억 달러로 아시아, 북미, 유럽 다음으로 많은 흑자를 기록했고, 2001년에 들어서는 아시아지역에 이어 2대 무역수지 흑자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전자산업 분야의 흑자 규모는 2000년에 25억 달러, 2001년 18억 달러에 달하였다. 총흑자에 있어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별 수출

멕시코,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에



서 한국은 2000년 중남미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고, 전자산업 수출의 경우는 멕시코와 브라질이 중심적 위치를 점하였다. 2001년에 들어서는 세계경기와 세계교역의 위축 속에서도 파나마, 바하마(영), 칠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등에서 10%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자산업 수출의 경우 브라질, 칠레, 파나마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국가별 수출을 살펴보면,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파나마 등 3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중남미 지역 총수출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3개국의 2000년 비중은 57.2%였고, 2001년의 비중은 59.3%에 달하였다. 한편, 전자산업의 수출에 있어서는 멕시코와 브라질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와 브라질 등 2개국으로의 전자산업 수출은 2000년에 74.1%였으며, 2001년에 70.4%를 기록하였다.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무역시장인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2000년에 23.9억 달러, 2001년에 16.5억 달러였다. 이 중 전자산업의 수출은 12.5억 달러, 8.4억 달러였다.

두번째 큰 무역시장인 브라질로의 수출은 2000년에 17.2억 달러, 2001년에 13.6억 달러였고, 전자산업의 수출의 경우 7.5억 달러, 6.1억 달러를 나타냈다. 파나마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에 각각 12.5억 달러, 12.7억 달러를 보였고, 전자산업은 각각 0.8억 달러, 0.8억 달러였다.

개별 국가로의 전자산업 수출은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하마로의 전자산업 수출은 같은 기간 10만 달러, 20만 달러로 미미하나, 수출은 4.9억 달러, 3.9억 달러에 달하였다. 칠레의 경우, 전자산업의 수출은 1.2억 달러, 1.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출은 5.9억 달러, 4.8억 달러를 나타냈다.

〈표 2〉 주요국별로의 수출 현황

(단위:억 달러, 괄호 안은 %)

국 가 명	2000		2001(1-9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남미전체	93.7 (8.4)	100.0	72.2 (7.1)	100.0
전자산업	27.0 (16.5)	100.0	19.2 (-7.2)	100.0
멕시코	23.9 (18.6)	25.5	16.5 (7.1)	22.9
전자산업	12.5 (16.8)	46.3	8.4 (-10.9)	43.8
브라질	17.2 (42.6)	18.4	13.6 (6.0)	18.8
전자산업	7.5 (33.3)	27.8	6.1 (6.9)	26.6
파나마	12.5 (-31.2)	13.3	12.7 (12.9)	17.6
전자산업	0.8 (-34.7)	3.0	0.8 (30.2)	4.2
바하마(영)	4.9 (-7.4)	5.2	3.9 (31.6)	5.4
전자산업	0.001 (-43.0)	-	0.002 (20.0)	-
칠레	5.9 (30.2)	6.3	4.8 (10.5)	6.6
전자산업	1.2 (5.4)	4.4	1.4 (51.2)	7.3
과테말라	4.9 (32.2)	5.2	3.6 (3.1)	5.0
전자산업	0.2 (263.2)	0.7	0.8 (-46.6)	4.2
베네수엘라	3.8 (35.7)	4.1	4.2 (40.9)	5.8
전자산업	0.9 (-12.5)	3.3	0.8 (5.5)	4.2
아르헨티나	4.5 (1.8)	4.8	2.7 (-21.6)	3.7
전자산업	1.9 (15.7)	7.0	1.1 (-31.9)	5.7
콜롬비아	2.0 (31.8)	2.1	1.7 (12.2)	2.4
전자산업	0.4 (123.5)	1.5	0.3 (20.7)	1.6
페루	2.1 (12.5)	2.3	1.4 (-11.1)	2.0
전자산업	0.5 (16.1)	1.9	0.4 (0.3)	2.1

주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비중은 중남미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한국무역통계

아르헨티나로의 수출은 2000년에 4.5억 달러, 2001년에 2.7억 달러였고, 전자산업의 수출은 1.9억 달러, 1.1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중,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로의 수출은 각각 4.9억 달러와 3.6억 달러, 3.8억 달러와 4.2억 달러, 2.0억 달러와 1.7억 달러, 2.1억 달러와 1.4억 달러였다. 전자수

출은 각각 0.2억 달러와 0.8억 달러, 0.9억 달러와 0.8억 달러, 0.4억 달러와 0.3억 달러, 0.5억 달러와 0.4억 달러였다.

- 주요 품목

주요 전자산업의 품목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에 있어 최대의 증가율은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가 차지하였고, 최대 수출금액은 X선 방사선기기 및 부분품이 접하였다. 737천 달러어치가 수출된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는 전년 대비 14,638%라는 획기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수출 증가율이 대폭 증가한 전자 제품으로, 109천 달러어치의 전자계산기, 1,791천 달러어치의 자전관, 4,507달러어치의 x선기기 및 부분

품, 6천 달러어치의 직류교류 겸용 전동기, 4,529천 달러어치의 x선 방사선기기 및 부분품, 172천 달러어치의 소프트웨어 및 727천 달러어치의 HDD 등을 들 수 있다.

-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수출 비중

한국의 중남미 수출은 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남미시장에서 한국 상품은 아시아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합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의 중남미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북미, 아시아, 유럽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총수출에서 점하고 있는 중남미로의 수출 비중은 한국이 5.4%로 가장 높고, 일본이 3.8%, 홍콩이 2.4%, 중국이 2.1%, 싱가포르가 1.9% 등을 나타내고 있다. 비중 측면에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중남미지역 수출 규모에 있어 주요 경쟁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표 3〉 주요 전자 품목별 중남미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국 가 명	2000		2001(1-9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 자 산 업 전 체	2,701,772	16.5	1,917,887	-7.2
기 타 의 전 자 식 계 입 기	365	941.6	737	14,638.1
전 자 계 산 기	1	-95.6	109	11,990.8
자 전 관	882	894.2	1,791	2,999.3
X 선 기 기 및 부 분 품	360	85.5	4,507	1,253.6
직 류 교 류 겸 용 전 동 기	0	-87.8	6	1,052.2
X 선 방 사 선 기 기 및 부 분 품	544	180.0	4,529	824.7
소 프 트 웨 어	33	-61.2	172	482.0
H D D	521	444.2	727	444.9

주 : MTI 1단위 기준/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한국무역통계

〈표 4〉 중남미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순위	국 가	1998	1999	2000
	중남미전체*	394.3	380.0	419.1
1	멕시코	125.2	142.0	146.8
2	브라질	120.9	104.6	118.7
3	아르헨티나	32.0	25.5	26.9
4	칠레	18.2	13.9	17.2
5	베네수엘라	13.0	13.2	14.3
6	콜롬비아	14.6	10.7	11.2
7	도미니카공화국	7.9	8.6	9.6
8	페루	8.0	6.7	6.5
9	코스타리카	6.2	6.5	6.8
10	파나마	3.4	3.5	11.1
11	과테말라	5.4	5.4	5.7
12	에쿠아도르	5.6	3.7	4.4
13	온두라스	2.5	4.5	5.1
14	엘살바도르	3.1	4.0	4.8
15	우루과이	3.8	3.6	4.3

주 : *는 중남미 33개국 기준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1, 한국무역협회

대만의 경우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2개 시장의 2000년 수출금액은 20.0억달러로 총수출에서의 비중이 1.3%였으며, 우리나라의 1/2 수준밖에 안되었다. 한국은 2개 시장으로의 수출은 41.1억 달러로 총수출에서의 비중은 2.4%를 차지하였다.

3. 중남미시장의 수입 현황

중남미의 개별국간 수입 규모는 격차가 심한 편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3개년간 평균수입액 기준으로 상위 두 나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3개년 평균 규모에 있어, 멕시코가 1,380억 달러로 최대의 수입국이고, 브라

질이 1,147억 달러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아르헨티나가 281억 달러, 칠레가 165억 달러, 베네수엘라가 135억 달러 그리고 콜롬비아가 122억 달러로 순위를 보이고 있다.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멕시코가 34.7%, 브라질이 28.8%, 아르헨티나가 7.1% 등 상위 6개국이 중남미 전체 수입시장의 81.2%를 차지하고, 여기에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해 6개국을 추가하면 상위 12개국이 중남미 전체 33개국의 수입에서 무려 90.8%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규모 상위 12개국 중 1998년 대비 2000년의 수입에 있어서는 파나마가 226.9%로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도미니카공화국이 22.6%, 멕시코가 17.3%, 베네수엘라가 10.2% 등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콜롬비아가 -23.4%로 최고의 감소율을 나타냈고, 에쿠아도르가 -21.9%, 페루가 -18.6%, 아르헨티나가 -16.0% 등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III. 국별 전자수출 5대 품목

- 멕시코

멕시코로의 전자수출은 2000년에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12억 5,300만 달러였으며, 2001년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8억 4,400만 달러를 나타냈다.

5대 상위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의전자관은 2000년에 2억 3,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3% 증가하였으나, 금년 들어 14.3% 감소한 1억 5,500만 달러에 그쳤다. 컴퓨터부분품은 같은 기간 중 각각 2억 5,300만 달러(24.7% 증가), 1억 1,700만 달러(34.6% 감소)였다.

텔레비전부분품은 1억 달러(7.9% 증가), 8,300

〈표 5〉 멕시코 전자수출 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호조 품목	2000년	2001년(1-9월)
전자산업전체	1,253 (16.8)	844 (-10.9)
기타의전자관	232 (6.3)	155 (-14.3)
컴퓨터부분품	253 (24.7)	117 (-34.6)
텔레비전부분품	100 (7.9)	83 (4.5)
천연색음극선관	65 (115.5)	79 (54.3)
휴대용전화기	49 (301.3)	74 (81.7)

주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만 달러(4.5% 증가)였다. 그러나, 천연색음극선관과 휴대용전화기는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인 호조를 나타내었다. 천연색음극선관은 2000년에 전년보다 115.5% 증가한 6,500만 달러, 2001년 들어 54.3% 증가한 7,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휴대용전화기는 2000년에 전년보다 301.3% 늘어난 4,900만 달러, 2001년 들어 81.7% 늘어난 7,400만 달러였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전자수출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우리

〈표 6〉 아르헨티나 전자수출 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호조 품목	2000년	2001년(1-9월)
전자산업 전체	193 (15.7)	107 (-31.9)
텔레비전부분품	22 (25.2)	27 (59.6)
에어컨	4 (-42.4)	15 (263.6)
휴대용전화기	45 (686.4)	9 (-73.4)
칼라TV	39 (-6.9)	9 (-73.6)
기타의음향기기부분품	11 (522.3)	7 (-7.0)

주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나라의 전자수출은 2000년에 1억 9,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7% 증가하였으나, 2001년 들어 1억 700만 달러로 31.9%나 감소하였다.

5대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텔레비전부분품과 에어컨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 텔레비전부분품은 2000년에 2,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5.2% 증가하였고, 2001년에도 2,700만 달러로 59.6% 증가하였다. 에어컨은 같은 기간 중 4백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휴대용전화기는 4,5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73.4% 감소하였고, 칼라TV는 3,9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73.6% 감소하였다. 또한 기타의음향기기부분품은 1,1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IV. 중남미시장 수출확대전략

전자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 있어 중남미 지역은 근래 많은 나라에서 거시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성이 커지고 있어, 종전과 같이 이 지역을 단순하게 수출의 보완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해 생산과 소비의 큰 잠재력을 가진 보고라는 시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중남미시장을 정세가 불안한 지역, 지나치게 빈번히 교체되는 정부, 복잡한 언어와 인종 문제 등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선입관이 많으나, 세계적으로 구리, 알루미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공급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남미지역은 남미공동시장, 카리브공



동체 등 무관세협정이나 특혜관세협정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칠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재와 자본재에 차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역외 국가가 진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지투자가 불가피한 것이다. 현지 투자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 현지에서 주효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디자인과 용량의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세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남미국가들도 정보화, 디지털화를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개방이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중남미지역의 수입에 있어 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멕시코와 브라질 등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이 정부 주도와 함께 민영화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기술산업이 경제성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민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전자정부 등 전자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초기

단계에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전자제품의 진출 여지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부간 협력 강화 등 아낌없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지 상주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상호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개척단 파견과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메이커와 셀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중남미시장을 막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들은 정부가 당사국간 외교 협상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시장 잠재력에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도 공공기관이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책이 해외 현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빈번히 파견하고 있는 시장개척단은 사전 사후에 현지의 유력하고 전문적인 회사들과 업무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게 될 수 있다.